

최문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

# “디지털 컨버전스 선도 연구기관으로 우뚝 서겠다”

글 | 이준기 \_ 디지털타임즈 기자 bongchu@dt.co.kr



“세계 최고의 IT R&D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글로벌 R&D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를 맞아 융합기술의 창출의 핵심기지로 거듭나는데도 조직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최대 IT 국책연구기관의 수장으로 취임 100일을 맞은 최문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은 최근 들어 IT분야의 최고 화두인 유무선 통합과 통방 융합 등을 대비해 ETRI가 IT 융복합화 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향후 30년의 ETRI 르네상스를 실현하는 초석을 놓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올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핵심원천기술과 미래전략기술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다음은 최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지난 11월 취임 당시 ‘ETRI 30년을 향한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ETRI의 르네상스는 R&D 프로세스의 창조적 파괴와 혁신을 통해 거둔다 기술 중흥의 꽃을 피울 때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ETRI는 현재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미래전략기술에 대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최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유무선, 통방융합기술에 대한 미래예측 역시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분석을 통한 ETRI의 지위와 역할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ETRI의 르네상스 실현은 ETRI의 핵심역량 결집과 인력자원의 고도화, 전문화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다.

ETRI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연구개발을 통해 정보통신 1등 국가 건설과 IT 국가경쟁력 1위라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가적 비전의 토대를 만들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 시장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적재산권 확보, 국제표준을 공세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인류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세계 최고의 IT R&D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글로벌 R&D체제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 ETRI가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방향은.**

올해 ETRI의 주요 연구·경영계획은 IT 839전략의 성공적 마무리, 4대 중점연구영역(유비쿼터스 인프라, 디지털 인텔리전스, 융합부품, 메가 컨버전스)설정, 연구개발 기획 및 상용화 추진체계 개선, 인력 재교육 강화, 연구소기업 창업을 통한 연구 결과물 사업화 방안 마련, 지속적인 노사 상생문화 정착, 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한 ‘ETRI맨십’ 제고 등이다.

◆ **취임 이후 조직개편을 단행했는데, 이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번 조직개편은 IT기술의 융복합화 가속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즉, IT839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IT기반의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융합 조직체계로의 전환이라 볼 수 있다. 지난해 말 IT융합부품연구소를 비롯해 9대 신성장동력사업 위주의 조직편제를 올해 초 IT융합부품연구소, 통방융합부문, S/W컴퓨팅부문, IT융합서비스 부문으로 나눠 융합형태의 조직효율화를 꾀했다. 따라서 인간중심 IT융합기술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써 IT R&D 세계 최고기관 실현이라는 목표로 유비쿼터스 인프라, 디지털 인텔리전스, 융합부품, 메가 컨버전스로 대두되는 4대 R&D 엔진을 강화하고 인력과 조직과 재원을 3대 자원으로 연구기획과 성과관리와 고객을 만족시키는 3대 프로세스를 전략으로 연구개발 방향을 잡았다.

◆ **유무선 통합과 통방융합 등 급변하는 IT 환경 속에서 ETRI는 어떤 부문에 주력해야 하는가.**

ETRI는 최근 일고 있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대비, 분야별 연구단 그룹핑을 단행했다. 즉, 광대역통합망연구단(BeN), 이동통신 연구단, 전파방송연구단을 묶어 통·방융합분야로 수석연구단 체제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따라서 수석연구단체제를 중심으로 ETRI는 급변하는 IT 환경속에서 IT839 수행조직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운영방법의 효율화를 통해 연구단간 융합 및 공통기술을 발굴, 조정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연구단을 그룹핑할 수 있게 됐다. 분야별 수석연구단장은 해당분야 연구단의 공통 미래기획과 연구단간 협력 및 조정기능을 수행토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술산업간 융합추세에 대응하는 연구단간 과제를 발굴, 기획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통방융합 등의 정책에 따른 환경변화에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 효율화에 만전을 기할 생각이다.”

◆ **대덕연구개발특구 출범 이후 ETRI의 역할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방안 및 계획을 소개해 달라.**

글로벌 R&D협력체계를 이루는 근간으로 대덕특구와 연계해 국내외 산학 및 R&D기관과의 공조 협력체계를 이뤄나갈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덕특구에 있는 연구기관들의 한계라 할 수 있는 개발기술의 상용화 과제를 상호 협력과 연구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 IT를 중심으로 융합기술을 위한 학제간 연구협력에도 주력해 대덕특구의 재도약을 일궈 나가는 선도기관으로 역할을 다하겠다. ETRI가 대덕특구 융합기술 확보의 중심지기로 나서겠다는 뜻이다. 기술사업화와 관련해선 R&BD 전주기적 기술 마케팅을 강화해 기술기획 단계부터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고 상용화

요소기술의 피드백과 후속 지원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R&D 전주기에 걸쳐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해 개발기술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고 마케팅 총괄 조직을 연구조직별 상용화 전담조직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데 노력하겠다.

보유 지적자산 가치제고와 확산에도 힘을 생각이다. 우선 로열티 창출의 시드특허를 연중 발굴해 체계를 구축하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는가 하면 국제특허풀, 적극적 라이선싱, 휴먼특허 매각을 통한 보유특허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다. 연구소 기업은 민간 추진이 어렵고 산업 파급효과가 큰 위주로 기술발굴 및 기업설립을 추진해 향후 매년 1년마다 1개 연구소기업을 목표로 설립해 기술사업화의 원천으로 삼겠다.

◆ **올해 IT 연구개발 및 산업의 화두를 꼽는다면.**

최근 IT트렌드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 네트워크, 단말기 등의 융·복합화하는 디지털 컨버전스라 할 수 있다. 올해 역시 이를 반영하듯 디지털 컨버전스가 IT연구개발 및 산업의 화두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IT 발전과 소비자 욕구, 정부정책, 이를 충족시키려는 기업의 대응이 맞물려 디지털 컨버전스는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네트워크 컨버전스도 진행되고 있는 등 앞으로 통신과 방송, 유선과 무선의 융합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 **향후 10년후 미래의 IT 삶을 그린다면.**

오늘날처럼 IT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다 보면, 10년 후 미래의 IT 삶을 예단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분명한 것은 문명의 이기인 IT기술이 우리의 미래세상을 밝고 환하게 또 윤택하게 해줄 것임은 확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노약자나 유아,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힘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각종 IT기술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중 대표적인 기술이 ‘지능형로봇 과’ RFID기술이라 생각한다.

또한 우리의 가정은 첨단 인텔리전트 디지털 홈이 되어 집안 곳곳에서 IT기술의 도움으로 실감나는 영상기술과 초고속 인터넷, 무선랜 기술 등의 사용으로 가전제품의 제어기술 덕택으로 따뜻하고 편리한 가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IT기술은 BT, NT, ET, CT 등과의 접목을 통해 모든 기술에 IT기술이 녹아들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원격으로 진료가 가능한 유비쿼터스 진료(U-헬스)시대가 도래할 것이며, 눈에 보이지 않은 원격로봇이 우리의 몸속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해로운 세포의 파괴, 혈관의 청소는 물론, 건강을 위한 지킴이가 될 전망이다. ㉔